

## 살려 쓰고 싶은 내 고장 사투리

—평안도를 중심으로—

金 英 培  
(東國大 教授, 國語學)

### I

위와 같은 제목을 연재로 기획한 편집자의 의도는 누구든지 짐작할 만하다. 곧, 방언 어휘에서 표준어로 쓸만한 것을 찾아 내서 소개하고, 그것이 言衆들의 동의를 얻을 만한 것인지를 알아 보며, 나아가 그것으로 해서 표준어의 어휘를 풍부하게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 몇 가지가 전제 조건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 가급적이면 표준어에 없는 어휘, 더 구체적으로는 국어 사전의 標題語로 실려 있지 않은 방언 어휘일 것.

둘째 : 가능한 한 漢字語 아닌 固有語일 것.

셋째 : 우리말 造語法에 어긋나지 않을 것.

이상과 같은 조건에 합당한 것이라면 표준어 어휘 속에 포함시킬 후보로 내놓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한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필자가 다루고 있는 平安方言 가운데서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얼마간 들고 설명을 붙이기로 한다.

그런데, 여기에 보이는 방언 어형 중, 어떤 것은 그대로 표준어에 넣을

것도 있으나, 어떤 것은 그 방언을 표준 語音으로 고쳐야 할 것도 포함되어 있음을 미리 밝혀 둔다. 순서는 가나다순으로 했으며, 단어 다음의 囹과 같은 품사 표시는 관례에 따랐다.

## II

- 1) 가시아바지\*囹<sup>1)</sup> 아내의 친정 아버지.
- 2) 가시오마니\*囹 아내의 친정 어머니.
- 3) 가싯집\*囹 아내의 친정.

이 세 단어는 의미상으로 관련이 되므로 하나로 묶어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표준어에는 이 단어에 해당되는 것이 漢字語로 ‘1) 丈人, 2) 丈母, 3) 妻家(집)’ 등이 있고, 1·2)는 다시 ‘聘父·聘母’로 쓰이기도 하나, 그 사용 빈도로 보아서는 ‘丈人·丈母’가 압도적이 아닌가 한다. 그러므로 표준어에서는 이에 대한 고유어가, 적어도 어휘 체제상으로는 ‘빈칸’(hole)으로 남아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를 메꿀 수 있는 어휘로 위 세 단어를 생각한 것이다.

이 합성명사의 IC 분석은 다음과 같다.

가시—아버지, 가시—오마니, 가시—스—집

이 때, ‘가시’는 중세 국어의 ‘갓’[妻]의 주격형이 명사로 쇠었다고 할 수도 있겠고, ‘갓’의 屬格形 ‘가시’가 ‘가시—가시’로 변천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후자로 보면 3)은 통시적으로 ‘갓—이—스—집’과 같은 분석이 되어, 속격이 결친 것이 되므로 전자를 취한다. 이렇게 되면, 1·2)는 명사<sub>1</sub>과 명사<sub>2</sub>가 수식 피수식의 관계로 ‘아내의 아버지, 아내의 어머니’가 되고, 3)은 명사<sub>1</sub>에 사잇소리가 첨가된 바, 이는 1·2)에서 명사<sub>2</sub>의 頭音이 모음인데 반해서 3)의 명사<sub>2</sub>는 무성자음을 頭音으로 가진 까닭에 다

1) \*표는 金履浹(1981) 「平北方言辭典」에 실려 있다는 표시이며, 뜻풀이도 그에 따랐다.

른 조어법이 쓰인 것으로 본다.

· 요컨대 1·2)는 방언 어형 그대로가 아닌 표준 어음 ‘가시아버지·가시아머니’로 3)은 방언 어형 그대로 표준어 어휘로 추천할 수 있겠다.

小倉進平(1945 朝鮮語方言の研究 上)에는 咸鏡方言 일부에서도 쓰이는 것으로, 또한 黃海道에서도 이런 어형이 쓰인다고 들었다.

- 4) 갈개다\*罨 맹수가 설치다. 잠을 험히 자다. 행동이 거칠다.
- 5) 갈괘질\*罨 친구끼리 붙들고 힘을 겨루며 시끄럽게 설치는 농.
- 6) 갈괘질하다\*罨 5)에서 파생된 동사.

이 세 단어도 같은 語根을 가지고 있어서 묶어 보았다.

4)는 ‘큰사전’이나 ‘국어대사전’(李熙昇)에 ‘찢다’로 뜻풀이가 돼 있고, 平安方言으로는 ‘가래다’로 적어 놓았다.

그런데, 이 ‘가래다’는 金履浹(1981)에 없으며, 필자도 아직 다른 문헌에서 보지도 못했으며 들어본 일도 없다.

그러나 ‘가래다’는 ‘갈개다’에서 근음 아래 7탈락된 어형으로 볼 수 있고, 뜻도 관련이 될 수 있겠다. 이 말은 아마도 다음과 같이 중세 국어 ‘괘외다’에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본다.

\*괘외다—괘외다—갈외다—갈왜다—가래다  
(再構形) 괘외다—갈외다—갈왜다—갈개다

한편, 4) ‘갈개다’의 뜻은 金履浹(1981)에는 앞의 두 가지만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파생명사 5) ‘갈괘질’과 파생동사 6) ‘갈괘질하다’의 뜻에 잘 연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세 번째 뜻을 필자 나름으로 추가해 본 것이다. 이렇게 되면 5·6)의 뜻풀이가 쉽게 이해된다.

따라서 5)는 교실에서 학생들이 서로 붙잡고 장난치는 것을 가리켜 말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이것이 정도가 좀 지나치면 싸움으로 발전되는 수도 있었던 것이 생각한다.

- 7) 괘지근하다\*罨 게을러서 움직거리기를 싫어하다.

중세 국어에서도 관련되는 말을 찾을 수 없어 語源은 잘 알 수 없으나, 표준어에 이런 뜻을 가진 형용사가 없으므로 여기 들어 보았다. 예문은 다음과 같다.

가(그 아이)는 껌지근해서 일을 잘 안해.

8) 나무랍다\*<sup>㉮</sup> 비변칙. 마음에 섭섭하거나 노여운 느낌이 생긴다.

비슷한 뜻을 가진 말로 표준어 ‘노엽다’가 있으나, 이는 漢字語源이라 생각된다.

표준어는 ‘나무라다’<sup>㉮</sup>가 있으나, 이에서 파생된 형용사는 없어서 이 말을 소개한다.

이는 물론 ‘용언 어간+이다’로 형용사를 파생시키던 중세 국어 조어법과 같다.

사랑하다—사랑롭다, 怒하다—怒롭다

9) 낮가이<sup>㉮</sup> 술집의 접대부. 매춘부.

金履浹(1981)에는 ‘나까이=갈보’로 되어 있으나, 필자가 알기에는 반드시 ‘갈보’만 가리킨 것이 아니고, 술집의 接待婦도 이렇게 부른 것으로 안다.

이의 조어는 ‘낮잡—[賤]+이’(명사형성접미사)로 ‘천한 사람’의 뜻으로 본다.

중세 국어에는 명사가 아니고 부사로 쓰인 다음과 같은 보기도 있다.

낮가이 너기디 아니하며(不賤)〈金剛·36〉

例文은 다음과 같다.

그 사람 당춘관(長春館) 낮가이한테 빠데서(빠져서)……

10) 밝다<sup>㉮</sup> 바르다.

金履浹(1981)에는 ‘발카 먹다’<sup>㉮</sup>로 합성동사로 들어 놓았으나, 표준어

에 ‘밭가벗다·벌거벗다’와 같은 합성동사가 있으므로 ‘밧다’라는 단어가 충분히 있을 근거가 된다.

이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밤[粟]-을 밧아 먹다.

강냉이(옥수수)를 밧아서 삶아 먹다.

그러므로 껍질을 베끼는 것을 뜻하지만, ‘사과’를 ‘밧아 먹는다’고는 쓰지 않는다.

### 11) 어이딸\*囡 어머니와 딸[母女].

이 말도 현대어에서 고유어는 없고, 漢字語 ‘母女’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나, 중세 국어에는 다음과 같은 용례가 있으므로 되살려 쓸 만한 것이다.

이속고 도즈기 한 겨집 모라와 朱氏의 어시쫘 마르쳐 널오더……〈三綱烈·27〉

이 용례로 보아 당시는 中央語로 써졌음을 알 수 있으나, 그 후 한자 어휘의 세력에 밀려 16세기 후에는 자취를 감추어 그 자리는 ‘母女’가 차지한 것으로 본다. 곧 ‘△’ 소멸 후의 어형 ‘어이쫘’이 문헌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平安方言의 ‘어이딸’은 바로 중세 국어 ‘어시쫘’의 직계이어서 표준어에 넣는 데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 12) 억년\*囡 항상. 늘.

이는 앞에 제시한 세 가지 조건 중 둘째에 어긋나는 것이나, ‘억년’으로 비음동화되어 쓰이므로 별로 한자어 느낌이 나지 않는다. 比喻나 誇張法으로도 꽤 많은 말로 생각된다. 金履洙(1981)에는 다음 예문을 들었다.

그래 개지구야(가지교야) 억년 가두(가도) 그 풀이디(풀이지).

혹, 표제어에 올릴 경우라면 비음동화된 어형으로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적하다.

### 13) 집나니<sup>㉠</sup> 갖 출가한 새색시.

이건 집나니래(새색시가) 개지구(가지고) 온 무라디(신부가 친정에 갔다 오면서  
가지고 오는 음식)떡이야.

이 단어의 조어법은 다음과 같다.

집[家]+나-[出]+니[관형사형]+이[형식명사]

이는 비음동화 현상으로 ‘집나니’로 발음되어 어감도 좋으며, 표준어로는 ‘새색시’가 있으나, 이런 어휘도 있으면 어떨까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조어법으로 볼 때, 이 말은 본시 뜻으로 보아서는 친정에서 출가한 딸을 가리키는 것이었겠으나, 시집 쪽에서도 쓴다고 平安方言 話者들은 이야기한다.

小倉進平(1945上)에는 ‘새색시’계단이 威鏡道에서 조사되었을 뿐이다.

### 14) 집오래\*<sup>㉠</sup> 집 근처.

이는 합성명사인 바, 古語에서는 ‘오래’가 단독으로 쓰였다.

문 오래며 과일남글[門巷果木]〈小諺六·88〉

오래 문(門)〈石千 27〉

門 문문 俗呼一子在外爲門國語 오래문

첫 예문에는 ‘집 근처의 거리나 골목’[巷]의 뜻으로 쓰였으나, 뒤의 두 보기는 ‘門’의 釋으로 쓰였다. 劉昌惇(1971, 語彙史研究)에는 ‘大門’을 가리킨다 했고, 小倉進平(1945上)에는 ‘근처[近所]·隣村’의 방언으로 威鏡南北道 대부분과 平安北道 및 黃海道 일부에서 [o-re]로 조사되었다.

金履浹(1981)에는 ‘집의 울안, 집의 울 안팎 지역’으로 뜻을 달아 놓았으나, 위의 여러 가지로 보아 필자는 ‘집 근처’로 풀이한다. 실제, 그런 뜻으로 쓰는 것을 많이 들었다. 찾는 사람이 집안에 없을 때, ‘집오래를 찾아 보라’고 한다.

### 15) 하낭\*<sup>㉠</sup> 합께.

이의 조어법은 다음과 같다.

하나[-]+양→하냥

이와 같은 조어는 중세 국어의 다음과 같은 방식이다.

ㅈ+양→ㅈ장[最]

하늘 짜리 ㅈ장 震動하니<月曲 8>

‘함께’도 고유어이나, 이 ‘하냥’은 그 뜻으로 보아서 ‘함께’보다 더 일체감이 나는 말이며, 비음이 있어서 어감도 좋은 편이다.

야! 합차(혼자) 가디(가지) 말구(말고) 하냥(함께) 가자.

16) 음 : 하디\*ㄷ 열중하다. 몰두하다.

이 단어는 표준어에서 뜻풀이와 같은 한자어가 있을 뿐이므로 고유어를 소개한다. 그러나 어원이 자세하지 않은 것이 약점이다. 혹, 중세 국어의 ‘오홀다’<sup>○</sup>와 관련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본다.

가는 그 일에 올해서 약속을 닛었나 봐.  
(그 아이는) (열중해서) (잊었나 봐)

### III

이상, 平安方言 어휘에서 표준어에 없는 것, 십여 단어를 소개했다.

표준어의 어휘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각 방언에서 쓰이는 아름다운(?) 말을 찾아 내는 작업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런 말이 과연 현대적인 감각에 맞느냐 하는 것은 언중이 결정할 일이다. 필자로서는 고향에서 쓰던 말이라 애착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면 할 말이 없으나, 적어도 중세 국어에 근거가 있는 것은 한번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은가. 관심 있는 여러분의 高見을 듣고 싶다. \*